

중남미 역사적 실체와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연구*:

중남미 현대 소설을 중심으로

이 용 선
(단국대 교수, 중남미문학)

1. 서론

그 동안 소홀히 되어왔던 지역 연구가 최근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학제간의 상호 협력관계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 연구의 기본 목표는 그 지역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도모하여 제 분야에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도 중남미 지역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공통적인 목표아래 효과적인 접근 방식의 하나로 문학, 구체적으로 중남미 현대 소설을 중심으로 역사적 실체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은 일차적으로 심미적 가치 추구를 기본 목표¹⁾로 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상상적 체험과 정서적 감응력에 의존함

* 이 논문은 1995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1) Rafael Lapesa Melgar, *Introducción a los estudios literarios*, Anaya,

으로써 문학적 접근 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격심한 모순과 갈등으로 이어진 중남미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조명하는데 있어서 문학을 논하는 일이 과연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다른 인문 사회과학만큼의 값이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과 함께 중남미 본질을 파악하는 접근 방식으로서 그 한계성이 지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학은 현실에 실제로 있었거나 있는 특정 사실을 액면 그대로 모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적인 것과 거리를 가지지만, 바로 이 거리를 통해서 낱말의 사실을 감싸안으며 넘어서는 형상적 인식으로 나아가면서 과거와 오늘의 삶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추구하는 한 방식이자 이 세계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로서의 몫을 가진다.²⁾ 본 논고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문학 작품 특히 중남미 소설의 분석을 통해서도 중남미 실체 분석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가설아래, 현대 중남미 소설을 통한 역사적 실체의 이해 도모가 본 연구의 목표이다. 특히 중남미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마술적 사실주의 작품들은 혼혈문화로 대변되는 중남미의 실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중남미 지식인들이 그들의 본질 파악을 위한 사상적 논쟁과 노력의 과정 속에서 함양된 정체성 탐구의식은 중남미 작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남미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 속에 표출되고 있는 중남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반합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중남미 작가들이 어떻게 역사적 실체를 문학작품 속에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중남미 현대 소설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적 제 발전 단계의 거시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 고찰해 보고자 한다.

Salamanca, 1964, p.9.

2)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86, pp.11-14.

2. 중남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반합(正反合)의 과정

중남미 대륙은 시간적으로 중남미 역사의 97%에 해당하는 원주민 문화가 파괴되고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1820년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독립할 때까지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식민지 문화가 강요되었다. 따라서 독립을 쟁취한 이후 독립을 선도했던 중남미 지식인들은 독립의 명분으로 자연히 반 스페인적인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오랜 기간동안 식민지 지배로 인한 정신적 공백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했으며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남미적인 고유의 자아확립이 급선무였다. 즉 중남미의 정치적 독립이 저절로 중남미적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었으며, 식민지 패턴을 대체할 사상적 무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중남미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사상가들은 자아분석을 통해서 스페인의 전통적 유산을 비판하게 되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반 스페인적인 사상의 대부로서 일찍이 스페인 정복자들의 신대륙에서의 만행을 인도적 차원에서 비판했던 바르톨레메 데 라스 까사스(Bartolomé de las Casas: 1474-1566)신부를 내세우면서 그의 사상을 부각시켜 반 스페인적인 논리를 전개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이 스페인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을 주장하는 어두운 전설(Leyenda Negra)³⁾의 계열로서 호세 빅토리오 라스따리아(José Victorino Lastarria), 프란시스코 빌바오(Francisco Bilbao),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 도밍고 파우스띠노 사르미엔토(Domingo Faustino Sarmiento)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식인들은 공통적으로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의 부정적 유산을 부각시킨다. 바르톨레메 데 라스 까사스 신부는 원래 그는 저서 『아메리카 파괴에 관한 보고서』

3) 이 용어는 Julián Juderías에 의해 그의 저서 *La leyenda negra y la verdad histórica*에서 처음 사용되었음.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1552)를 통하여 스페인 정복자들의 만행을 저지하고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원주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즉 이 작품은 인본주의의 상징으로서 윤리 적이며 동시에 실천적인 작품으로서 불의에 대한 감시자로서 그리고 정의의 위한 싸움의 도구였다.⁴⁾ 그러나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유럽의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명분을 퇴색시키고 도덕성을 실추시켜 위상을 손상시키고자 했다. 곧 이 작품은 후세의 많은 정치문학을 야기한다.

이러한 바르톨레메 데 라스 까사스의 정신과 맥을 같이하여 라스파리아(1817-1888)는 스페인 전통의 유산을 철저히 부정하고 독립 후 새로 탄생한 신생국가의 발전모델로서 영국, 프랑스의 문화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라스파리아는 식민지 시대의 칠레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사회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과거의 우리 사회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지난 3세기 동안 지배받았던 것과 정반대의 체제와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물론 아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항상 복종에 얽매어 살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법과 관습은 도덕의 중요성과 개인성을 파괴하고자 했으며 따라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아인식을 가질 수 없었으며 결국 이들은 왕권과 신정에 그들의 삶과 이해를 종속시켰다.”⁵⁾

라스파리아는 중남미의 진정한 본질 추구를 위해서 식민지 유산의 단절 없이는 불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

“중남미의 혁명은 결코 독립 운동가들의 최후의 승리로 달성될 수 있는 것

4) Bartolomé de las Casas,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Cátedra, Madrid, 1982, p.53.

5) José Victorino Lastarria, “Investigaciones sobre la influencia social de la conquista y del sistema colonial de los españoles en Chile”, en *Antología del pensamiento social y político de América Latina*, pp.389-390. (José Luis Gómez Martínez의 *Pensamiento hispanoamericano del siglo XIX*에서 재인용. p.406)

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단지 정치적 노예로부터 해방될 뿐이지 그들의 관습과 사회정신의 해방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⁶⁾

라스파리아 이외에 빌바오, 알베르디, 사르미엔토 등은 모두 악의 원천을 스페인의 정신적 유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성공의 모델로 앵글로색슨 문화의 모방을 주창하였다. 빌바오는 다음과 같이 스페인 전통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능숙하게 칼을 다루었을 지는 몰라도 쟁기와 호미 그리고 망치를 다루는 것을 알고자 원치도 안 했다. … 우리의 과거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중세이다. 중세는 카톨릭교와 봉건주의의 정수이다.”⁷⁾

알베르디는 야만에서 문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앵글로색슨 사람들 자체를 이민시켜서 중남미에 정착시키자고 역설한다. 또한 이민정책에 따른 문화의 허용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르미엔토(1811-1888)도 식민지 시대의 스페인 문화의 유산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북미의 문화는 쟁기와 학습장의 산물이다. 남미는 십자가와 검으로서 문화를 파괴시켰다. 북미에서는 근로와 지식을 터득한 반면 이 곳 남미에서는 게으름과 기도만을 가르쳐 왔다. 그 곳에서는 근로의 미덕을 도입했는데 이 곳에서는 단지 관료주의와 무위도식만 성행했을 뿐이다.”⁸⁾

그러나 이들은 이분법적 대립적 인식의 틀을 제시한 후 그 중에서 기계론적으로 하나를 폐기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사고의 경직성이 있었으며 결국 대립물의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양자 택일의

6) *Ibid.*, p.396.

7) Francisco Bilbao, “Socialbilidad Chilena”, *Obras Completas*, Buenos Aires, 1986, p.87.

8) Domingo Faustino Sarmiento, “Conflicto y armonía de las razas” en *Conciencia intelectual de América*, Carlos Ripoll, 1974, p.86.

인식의 기초에 있었다. 일찍이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가 ‘독립의 여명기에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우려했듯이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와 중남미 현실과의 엄청난 차이는 이분법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계속되면서 독재자의 출현을 정당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중남미 사상가들은 스페인 전통으로부터 정치적 독립과 함께 진정한 정신적 독립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민주의의 정신적 도구였던 스킨라 철학의 대체물로 실증주의를 채택했고 실증주의는 중남미의 정신적 해방과 새로운 질서를 위한 건설의 도구이자 현실 변혁의 장치로 인식되었다. 이리하여 실증주의는 중남미에서도 영국 미국과 같은 세계 문명을 주도해 갈 새로운 엘리트적 중남미인의 창조에 있어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로 독립 이후 식민지적 신학 질서는 실용 교육 지향의 질서로 바뀌고 물질적 풍요를 목표로 한 새 질서의 확립, 구대륙으로부터의 이민 증가, 산업발달에 의한 부의 축적과 자신감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실증주의는 중남미 독특한 현실 속에서 중남미 실용주의자들이 확신했던 것과 달리 사회 각 층에 교육이 골고루 보급되지 못하고 물질주의의 팽배 및 무차별 외국 자본의 도입으로 새로운 경제 종속 즉 신식민주의의 형태로 선진 열강의 경제력에 예속되었으며 소외 계층의 출현 및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식민지 시대의 정신이 그 모양과 이름만 바꾸었을 뿐 본질적인 사회 변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⁹⁾

중남미인들은 독립을 쟁취한 이후 오랜 식민지 시대의 정신적 지주였던 스킨라 철학을 배척하고 대체 모델로 실증주의 사상을 도입하였으나 실증주의 사상도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것을 배척해야 하는 혼돈 속에 있었다. 그들이 선호하던 영. 미 사상은 이제 더 이상 중남미 발전의 모델로 삼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정신적 혼란을 극복하고 중남미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사상의 조류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9) 손관수, 「정체성의 추구: 이상과 현실」,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제22집』, 1989, pp.126-127.

중남미인을 위한 하나의 비전으로서 호세 엔리께 로도(José Enrique Rodó)는 『아리엘』(Ariel, 1900) 작품을 통하여 중남미는 지중해 문화권에 속해 있음을 재인식시키고 궁지와 새로운 사명감을 갖도록 시도하였다. 즉 로도는 영미의 물질주의·공리주의·실용주의를 상징하는 칼리반(Calibán)과 전통적 원만한 인격체를 구비한 아리엘(Ariel)을 등장시켜 비교하고 있는데 중남미 사상의 현 방향의 기초가 되는 이상의 진화에 있어 아리엘의 의미는 공리주의와 실증주의의 한계에 대항하는 이상주의적 삶의 가치를 확장하는데 있고 중남미 종족의 감성, 역사적 유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필수 불가결한 힘을 옹호하는데 있다.¹⁰⁾ 중남미의 역사적 단일성과 특수성을 감안, 진정한 중남미 사상의 상징으로서 아리엘 정신은 그 후 많은 사상가들에게 고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09년 멕시코에서 청년학회가 창설되며 페드로 엔리께스 우레냐(Pedro Henríquez Ureña), 알폰소 레이예스(Alfonso Reyes),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 안토니오 까소스(Antonio Casos)가 주축이 되어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 독재 정권에 명분을 제공했던 실증주의의 물질지향적인 가치관을 배척하게 된다.

특히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중남미인의 자아 인식을 깨우치는데 크게 기여한다. 그는 『세계인』(La Raza Cósmica)이라는 저서에서 중남미는 어느 지역보다 동일한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다른 외부 세력의 침투로부터 동질성만 유지한다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스콘셀로스의 사상은 그 후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중남미적인 정체성 탐구에 그 초점이 맞추어 진다.

중남미 사상사에 있어서 제 2차 세계 대전은 서구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중시킨다. 옥따비오 빠스(Octavio Paz)는 그의 수필집 『고독의 미로』(El laberinto de la soledad, 1950)에서 중남미 역사 전체를 자아 발견과 정체성 추구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의 각별한

10) Martín S. Stabb, *América Latina en busca de una identidad*, Monte Ávila Editores, Caracas, 1967, pp.58-59.

역사적 운명을 숙고하면서 거시적으로 중남미 전체의 역사적 운명을 조망하고 있다. 서구와 소외 지역간의 전통적 수직관계는 붕괴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 형태가 파괴되면서 보편적 세계사의 한 일원으로서 역사적 인식을 부여받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현대 중남미 사상가의 대가 레오폴도 세아(Leopoldo Zea)는 유럽 중심의 이데올로기의 위협성을 지적하면서 열등의식과 종속적인 관념은 외부 변수에 의하여 파생된 역사적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중남미인의 의식 속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편견은 서구 식민주의자들의 일방적 관점에서 비롯되었으며 중남미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은 열등의식이나 서구의 종속적 관계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중남미의 주어진 현실 자체이자 다른 어느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중남미는 실존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방황과 고뇌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통합의 가속화와 함께 동질성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 추구하고 관련, 정반합의 단계적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식민지 시대의 신학적 단계로 오랜 식민지 지배의 유산을 벗어나기 위하여 식민지 시대에 정신적 지주였던 스킨라 철학의 병폐를 척결하고자 했으며 둘째 단계는 계몽주의자 및 자유주의 신봉자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독립 초기를 거쳐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반 스페인적인 명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서구의 모델을 수용하려 했던 실증주의 단계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본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화의 흐름 속에 세 번째 단계로서 중남미 독자적인 자아 인식의 노력을 시도하는 1900년대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1) Leopoldo Zea, *América como conciencia*, Cuadernos Americanos, México, 1953, p.161.

시대	1492-1820	1820-1900	1900-현재
단계	정	반	합
구조	스페인 식민지	정치적 독립: 신 식민지 형태로 종속→탈종속화 노력	
사상	스콜라 철학	정신적 독립: 영미 모델 채택(실증주의)	독자적 중남미 모색
현실	스페인 정복자	끄리오요, 토호, 독재자 출현, 대토지 소유자 → 개혁 시도	

그러나 지나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무질서와 혼란과 폭력은 결국 본질 추구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있을 때 2차 세계 대전 이후 과학 과신의 서구 문명의 쇠퇴는 정체성과 본질 부재로 가중되는 열등의 식으로부터 해방되고자 열망하는 중남미인에게 자아회복의 욕구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1950년대 이후 중남미 문학은 세계 문학 속에서 큰 관심을 부여받으면서 중남미 문학의 봄을 조성하게 된다. 미술적 사실주의의 기법으로 대표되는 중남미 소설의 경우 다양한 현대 문학의 기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중남미 정체성 추구가 작품의 본질적 내용이라 볼 때 독자적인 중남미적인 것을 모색해 왔던 중남미 지식인들의 정신적 고뇌는 중남미 작가들에게 훌륭한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해 왔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정신적 성숙과 중남미에 대한 애착이 독특한 중남미 문학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3. 중남미 소설의 변천 과정과 문학적 형상화

3.1. 중남미 소설의 변천 과정

끊임없는 이분법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중남미 혼혈 문화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중남미 현대 소설 특히 미술적 사실주의의 특

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략적이거나 중남미 소설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남미 지역에서 소설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장르에 비해서 많은 제한적 요소가 뒤따랐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에 시, 연극 혹은 연대기 형태의 산문이 있었지만 소설은 독립 이후 비로소 처음 출현하게 된다. 근대 소설의 효시가 바로 스페인인 점을 감안할 때 오랫동안 중남미에 소설의 출현이 달성되지 못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독립을 쟁취한 이후 서구의 여러 문학 사조를 도입, 모방의 단계에서 중남미 독자적인 문학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빠르고 풍부하게 발전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1) 300년간의 공백기

중남미 문학사를 살펴볼 때 소설은 식민지 시대에는 창작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페드로 엔리게스 우레나는 1532년과 1543년 칙령에 의하여 산문으로 된 모든 상상의 작품의 전파를 금지하였고 중남미에서의 출판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설 장르의 발전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²⁾ 효과적인 식민지 정책에 역행한다고 생각되어 출판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며 소설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돈키호테』가 널리 읽혀진 것은 완전한 통제를 이루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인쇄소가 많지 않은 당시로서는 근본적으로 당시의 출판에 관한 관리 통제는 비교적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할 때, 스페인 본토에서 신자유헌법이 제정된 이후 비로소 중남미에서 첫 소설(EI Periquillo Sarmiento, 1816)이 등장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독립 이후 서서히 소설은 그 작품 수가 늘어갔지만 출판의 어려움과 소설 쓰기의 관행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사본이 유통되고 중남미 일부 지식인들 간에 작품이 읽혀졌지만 작품의 출현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2) Pedro Henríquez Ureña, *Estudios mexicanos*,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D. F., 1984, pp.85-86.

2) 19세기 낭만주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서구 문화의 표현 양식으로 출현했던 낭만주의는 중남미가 활발하게 독립 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자유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내부 갈등의 시기에 낭만주의는 새로운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미학적 사고의 원동력으로 중남미에 도입이 된다.¹³⁾ 중남미 초기의 소설들은 후기 낭만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유럽의 모델을 모방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라마르텐느, 사또브리앙, 빅토르 위고, 스코트 등의 낭만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보급판으로 비교적 활발히 소개된다. 연대적으로 최초의 작품으로 시릴로 비야베르데(Cirilo Villaverde)의 『세실리아 발데스 혹은 천사의 언덕』(Cecilia Valdés o La loma del ángel, 1839)을 언급할 수 있다. 소설의 구조는 낭만적인 구도로 노예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분노를 자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아울러 호세 마르몰(José Mármol)의 작품 『아말리아』(Amalia, 1855)는 아르헨티나의 역사 및 정치와 관련된 낭만주의 소설로서 로사스 독재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낭만주의의 정상에 있는 작품으로 호세 이삭스(José Isaacs)의 『마리아』(María, 1867)를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시대의 감정을 중남미적인 환경 설정과 결부 가장 원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풍속에 관한 묘사가 낭만주의 사조의 흐름 속에 적극적으로 스며들어 중남미 특색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중남미 소설은 그 출현 때부터 사회학적 관심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며 당시의 유행했던 사조가 비록 이식되어 왔다고 할지라도 지리적, 인종적, 정치적 중남미적인 배경이 항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내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¹⁴⁾

3)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13) Rosalba Fernández Contreras, *Literatura de México e Iberoamérica*, McGraw-Hill, 1992, pp.306-309.

14) Manuel Antonio Arango, *Origen y evolución de la novela hispanoamericana*, Tercer Mundo, Bogotá, 1989, pp.67-73.

사실주의는 삶의 양태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문학 흐름으로 낭만주의의 지나친 이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19세기 후반에 실증주의 사상에 근간을 둔 구체적 삶의 실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미학적 과정에서 사실주의는 예술 작품은 자연에 대한 충실한 모방으로 간주하고 실체에 대한 복제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반영으로 과학적인 자세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감정에 의하여 상상된 실체가 아닌 엄밀한 분석과 관찰로 진실을 추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중남미에 낭만주의가 이식되는 시점에 유럽에서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전개되었던 사실주의는 중남미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일상 생활을 경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게 된다. 사실주의에 입각한 현실에 대한 충실한 재현은 자연주의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4) 20세기 사실주의 소설들

20세기의 중남미 사실주의 소설은 크게 3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¹⁵⁾ 첫째 부류는 자연에 대한 주제를 중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다. 중남미 대륙의 광활함, 거대한 셀바지역, 강, 대평원 등은 소설의 중심 축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한 중남미의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들을 토지 소설로 명명하고 있는데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 투영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리베라(Rivera)의 『소용돌이』(La Vorágine, 1924), 가예고스(Gallegos)의 『도냐 바르바라』(Doña Bárbara, 1929), 구이랄데스(Güiraldés)의 『돈 세군도 쉘브라』(Don Segundo Sombra, 1926)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부류로서 사회소설을 들 수 있는데 원주민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고발을 시도하고 있다. 아르구에다(Argüeda)의 『동의 부족』(La raza de bronce, 1919)을 기점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소설은 특히 이까사의 『우아시뽕고』(Huasiungo,

15) José Luis Sánchez Ferrer, *El realismo mágico en la novela hispanoamericana en el siglo XX*, Anaya, Madrid, 1990, pp.19-30.

1934)의 작품을 통해서 원주민에 대한 권력 집단의 부당한 횡포를 폭로 고발하고 있다. 셋째 부류는 멕시코 혁명 소설들로서 사회 변화의 한 획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이 당시의 작가들에게 간과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멕시코 혁명 소설들도 이러한 흐름의 한 주류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소설로는 마리아노 아수엘라(Mariano Azuela)의 『하층민의 사람들』(Los de abajo, 1916)을 들 수 있다.

5) 전위주의: 전통과의 단절

중남미 소설을 논하는데 있어서 1920년대의 전위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의 중남미 작가들은 당시 유럽에 체재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위주의의 흐름을 감지하게 된다. 특히 1924년 앙드레 브레통(André Bretón)이 발표한 초현실주의는 중남미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인간의 심리에서 차지하는 잠재 의식의 비중을 염두에 두면서 중남미의 전통적 신앙, 집단 의식, 신화에 깊게 배어 있는 중남미 현실을 소설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6) 중남미 현대소설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남미 소설은 그 성숙 단계의 발판을 맞이하게 된다. 그 동안 관심이 되어왔던 중남미 지리적 공간,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고발 등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도시문제 등으로 관심 영역이 넓어지고 아울러 현대인간의 문제에 대한 단순 비판의 차원에서 벗어나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형식이 도입됨으로서 전통적 중남미 테마가 내용과 형식의 조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¹⁶⁾ 소위 지방색이 강한 소설 혹은 원주민에 대한 소설들은 사실주의에 바탕을 둔 작가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적 묘사에 비중을 주었다면 1940년 이후의 현대소설은 전통적 테마의 흑백 논리에 예술적 형식미를 부과함으로써 혁

16) Marina Gálvez Acero, *La novela hispanoamericana contemporánea*, Taurus, Madrid, 1987, p.35.

신적 문학 작품을 산출하게 된다. 1960년대의 중남미 붐 소설들은 이와 같이 서서히 시도된 새로운 형식의 소설들의 완성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 다발적으로 역량 있는 중남미 작가들의 작품이 외국에서의 활발한 출판의 지원으로 출간된다. 페루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의 작품 『도시와 개들』(La ciudad y los perros, 1962)이 스페인 Biblioteca Breve 문학상을 수상하고 콜롬비아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의 작품 『백년간의 고독』(Cien años de soledad, 1967)의 출간으로 본격적인 중남미 소설의 붐을 조성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된다.

이러한 중남미 소설의 붐을 일으킨 작가와 작품들은 각각 다양한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테두리로 묶어 분류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공통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현대 소설들의 작품 형성의 배경으로 외생적 변수를 고찰해 보면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창출된 분위기를 지적할 수 있다. 유럽 중심적 사고의 붕괴, 발전과 낙관적 믿음에 대한 상실 등은 서구 지향적 가치관을 탈피하고 중남미가 갖고 있던 열등의식을 벗어나 중남미 고유의 특성에 대한 자아의식의 발현을 추구하는 동인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남미 작가들은 중남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중남미 문화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세계 문화의 중요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요로운 문화의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문화는 세계 문화의 한 영역이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이상적 문화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맹목적으로 이를 모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아래 중남미 지성인들은 그들의 문화의 뿌리, 원초적인 중남미의 본질을 모색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고대 문화의 신화가 새로운 관심으로 재조명되었으며 대표적 작가로 아스투리아스(Asturias)를 들 수 있다.

또한 외국 유명 작가들의 새로운 문학 기법이 중남미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이스(Joyce), 카프카(Kafka) 등은 대표적 작가

로 이러한 새로운 문학기법은 중남미 현대 소설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중남미 현대 작가들은 전통적 소설 기법인 사건의 시간적 질서를 유지한 기법을 탈피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전지전능한 작가의 역할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조망주의를 가능케 하고 있다. 현대소설은 언어의 혁명과 기법의 혁신으로 기존의 소설의 틀을 벗어나고 있으며 이제 소설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신화, 언어, 구조의 결실로 등식화되고 있다.¹⁷⁾ 인간의 문제와 중남미 현실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언어와 작품 구조, 시간 그리고 현실을 하나의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총체적 단위로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남미 소설은 실체에 대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실체를 관념화하고 있다. 인간이 실제로 감지할 수 있는 실체만이 실체가 아니고 오늘날 중남미인에게 스며있는 무의식 속의 심리, 문화적 신화도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실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개념이 전통적 개념에서의 사실주의 작가와는 달라 현실과 비현실 등이 공존하는 현실을 실제의 현실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두 요소의 결합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의 세계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남미 현대 작가들은 환상 문학 작가로 명명되는 작가들과는 달리 그들의 환상이 관념적이거나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사실주의적인 작가의 정신으로 중남미의 실체를 파헤치고 보다 성숙된 단계에서의 중남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본질적 의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보아온 중남미 소설의 변천과정도 역사적 세 발전의 흐름 속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정반합의 단계처럼 식민지 시대의 공백기, 서구 문학사조의 모방의 단계를 거쳐 진정한 중남미의 실체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성숙한 단계로의 발전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중남미 독립 이후 사회

17) Carlos Fuentes, *La nueva novela hispanoamericana*, Joaquín Mortiz, México, 1980, p.20.

적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중남미의 자아 확립을 위한 고뇌와 갈등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변화해 온 문학의 주요 흐름 속에서 마술적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들은 1950, 60년대에 이르러 문학의 질적 양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는 중남미 현대소설들을 대변하면서 중남미 실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중남미 작가들의 문학적 결실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지역적이자 중남미적인 소재를 가지고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한 문학기법을 통하여 중남미 실체를 형상화함으로써 독특한 미학적 과정을 창출함과 동시에 중남미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3. 2. 문학적 형상화 과정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 정체성의 논쟁에서 보여 주고 있는 이분법적 대립의 과정은 한마디로 중남미 본질 파악에 있어서 정치적, 철학적, 미학적 모든 개념과 가치의 다원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의 문화적 구조는 식민지 시대에는 크리오요들과 페닌술라레스, 19세기에는 문명과 야만, 보수와 자유, 스킨라 철학과 실증주의, 20세기에는 세계주의와 국수주의, 좌익과 우익 등의 극단적 두 개의 상충적인 요소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왔다. 복잡 다단한 중남미 실재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시간(전통과 현대)과 공간(중속과 중심의 관계)에 의해 설정된 좌표아래 보여주고 있는 중남미 정체성의 이분법의 전개는 중남미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고뇌와 더불어 중남미 실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중남미 본질 파악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립적 두 요소를 묶음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동질적	다원적
내생적 문화	외생적 문화, 이식된 문화
자기 중심 문화	종속문화
구심력의 문화	원심력의 문화
농촌	도시
야만	문명
토착문화	비토착 문화
저항	순응
전통	혁신
사실주의	초현실주의

끄리오요(중남미 출신)	페닌슐라레스(스페인 출신)
민중	엘리트
본토 출신	이민자
원주민	유럽인
국수주의	세계화
독립	종속
퇴보	발전
보수	자유
우파	좌파
지속	단절
자급자족	상호의존
스콜라철학	실증주의
고립	참여

상기 열거한 이분법적 대립의 요소들은 중남미 본질 파악에 있어서 이 중적 구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여 중남미 실체 파악을 위한 끊임없는 대립 반목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정체성의 확립은 두 요소의 상호 대립 모순의 관계 정립이 아니고 변증법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합과 조화만이 중남미의 진정한 정체성의 확립의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중남미 문학 특히 현대 소설은 이러한 정체성 규명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 접근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술적 사실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소설의 문학적 기법은 사실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객관적 분별력으로 인정되는 역사적 실체와 국민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주관적 실체의 결합 속에서 진정한 중남미 본질파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질성과 다양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중남미는 사실적 요소와 상상의 요소가 항상 공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스러운 두 요소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현대 중남미 소설의 문학적 기법은 매우 효과적으로 중남미 실체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한 지역의 정체성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내재되어 있으며 전통과 혁신의 끊임 없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형성 변화되는 동태적 개념으로 파악해 볼 때 문학은 감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객관적 실체와 보이지 않는 주관적 실체를 모두 포함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의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실주의보다 더욱 진정한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가장 사실주의적 작가는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로서 경험적 사실과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불신하는 작가로 볼 수 있다. 문학이 갖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단어들로 표현된 심미적 가치 추구의 예술적 창작물이라는 정의에 비평가들 사이에 큰 이의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모든 작가는 가장 적절한 문학 기법을 도입하고 가장 적절한 어휘 선정, 가장 예술성 있는 작품 구상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의 현실은 매우 의미 있는 요소로서 작품에 나타난 어휘 선정, 작품의 구조 및 작가에게 심오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외생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의 변화에 작가는 영향을 받아 표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표현의 변화는 작품을 통해서 가치관의 전도를 가져오면서 문학과 사회는 상호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작용과 반작용의 기계적 운동에 의한 상호 영향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세르반테스 작품 이후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변화에 다양한 문학 사조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문학과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학은 독립적이고 정태적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 삶에

깊이 침투되어 있으며 따라서 문학이 속해있는 그 지역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치로서 정체성 파악을 위한 탐구자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속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남미 지역의 역사적 실체 파악에서 문학이 갖는 의미를 재음미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중남미 현대 소설은 중남미인의 본질과 의식의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중남미 현대 소설은 중남미인의 새로운 인식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문학에 그 풍요로움을 더하며 중남미인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호세 마르티는 중남미적인 본질의 요소가 없었다면 중남미 문학의 존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¹⁸⁾ 중남미 현대 소설은 중남미의 역사적 객관적 실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근본적으로 중남미의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중남미 소설의 성과는 객관적 실체와 주관적 실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현실과 꿈, 역사와 신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환상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현대 소설에서도 예외 없이 작품의 소재를 제공해주는 중남미의 객관적 실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중남미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이미 높은 수준의 문화를 소유했던 마야, 아스떼카, 잉카 제국의 문화는 중남미의 하부 계층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들의 신화, 관습, 언어 등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 후 식민지 시대는 비록 300년간의 상대적으로 짧은 지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중남미에 식민지 유산을 남긴다. 광활한 중남미 대륙은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차상품을 특화 생산하고 이차상품을 수입 소비하는 경제적으로 본국에 예속되는 종속적 경제 패턴을 지니게 된다. 그 후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이

18) José Martí, *Ensayos sobre arte y literatura*, Instituto cubano del libro, 1972, pp.50-51.

후에도 여전히 경제적 예측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신식민주의 형태로 열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저 발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후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공업발전을 꾀하면서 자주적인 발전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악성 인플레이, 경상수지의 적자, 빈부의 격차, 낮은 임금, 실업 문제, 급격한 도시 팽창과 사회적 문제 등 만성적 저발전 국가의 제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2) 자연적 환경: 멕시코에서부터 과타고니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중남미 대륙은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강을 위시하여 매우 다양한 자연적 환경을 소유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밀림 지역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며 같은 위도라 할지라도 해발의 고저에 따른 다양한 기후, 열악한 교육 환경, 대 토지 소유자와 영세 농지 소유자와의 엄청난 격차 등은 한마디로 정체성의 확립에 많은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3) 중남미 구성원의 특성: 상기 언급한 정치, 경제, 사회, 자연적 요소들은 중남미인에게 좌절과 분노, 절망의 제 감정을 유발하였다. 다양한 동식물군, 같은 위도라 할지라도 상이한 기후, 다양한 인종 분포 등은 중남미의 독특한 혼혈 문화를 생성하면서 단일성과 이질성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독특한 중남미의 특성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중남미의 독특한 환경을 중남미 현대 소설들은 기본적 소재로 삼으면서 언어의 혁명, 마술적 요소의 도입으로 사실주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독특한 문학기법의 창출로 독자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하면서 중남미의 역사적 자아 인식을 총체적으로 효과 있게 규명한다. 독자들을 환상적 세계로 유도하는 마술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¹⁹⁾

1) 환상적 여행: 광활한 중남미 대륙은 환상적 요소를 자아낸다. 중남미 현대 소설은 작중 인물의 공간적 이동을 통하여 환상적 분위기에 독자

19) José Antonio Bravo, *Lo real maravilloso en la narrativa latinoamericana actual*, Editoriales Unidades S.A., Lima, 1978, pp.31-32.

들을 유도한다. 수많은 여행은 신비로움과 상상의 영역을 확대시켜 준다.

2) 작중 인물: 대부분의 인물들은 초인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초인적 행동 등을 또한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3) 신비스러운 사건들: 믿기 어려운 초인적 사건들이 마치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태연하게 기술되고 있다.

중남미 현대 소설들은 20세기초의 중남미의 사실주의 소설처럼 구체적 인 중남미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중남미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문화 유산이 작가에게 자연스럽게 작품의 소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현실이 창조적 상상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환상의 단계로까지 비약 발전한다. 이리하여 새로운 환상 혹은 마술의 세계로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새로운 미학적 마술의 세계는 논리와 자연법과 모순되는 세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남미 현실은 있는 자체를 진실로 믿기에는 엄청난 왜곡, 가식, 변형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의 세계에서 진정한 중남미 실체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헤겔의 정반합의 단계를 중남미 현대 소설의 발전 과정과 비교해 본다면 정(正)의 단계는 사실주의에 해당하고 반(反)의 단계는 초현실주의 단계로 합(合)의 단계는 마술적 사실주의 단계로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 현대 소설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의 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1) 중남미 대륙의 환상적 현실의 세계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원인 제공을 해주고 있다.

2) 마술적 사실주의는 주어진 현실에 대한 작가의 입장 표명으로서 고상하고 때로는 서민적일 수 있는 닫힌 구조와 열린 구조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중남미 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미학적 운동이다.

20) Luis Leal, "El realismo mágico en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Cuadernos Americanos*, Núm. 153, 1967, pp 232-235

3) 작가는 현실과 직면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내재되어 있는 신비로움을 파헤치는데 그 의도가 있다.

4) 중남미 현대소설에서 핵심적 사건들은 경우에 따라 논리적 설명이 필요치 않다.

5) 미술적 사실주의 작가들은 주변의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도피하지도 않으며 현실 속에서 숨쉬고 있는 신비로움을 간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6) 신비로움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작가는 자기의 모든 감각을 최고조로 동원 언어의 혁명으로 표출한다.

상기 열거한 특징들을 지닌 미술적 사실주의는 초현실주의(Surrealismo)나 알레호 까르펜띠에르가 명명한 경이로운 현실(Lo real maravilloso)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이로움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현실주의는 일상적인 생활에 둘러싸여 있는 실재와는 거리가 먼 초현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이로운 현실에서 알레호 까르펜띠에르(Alejo Carpentier)는 중남미의 현실을 도처에 산재한 찬란한 보석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경이로운 현실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역사 속에 숨쉬고 있으며 작가는 인위적 여과 과정 없이 자기의 섬세한 통찰력을 발휘 언어로 나타내면 이것이 바로 실존적 현실이며 진정한 중남미 실체라고 역설하였다. 반면 미술적 사실주의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에 둘러싸여 있는 실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실재는 원자재와 같아서 작가의 예술적 재능에 의하여 미술적인 세계로 바뀌게 된다.²¹⁾ 이와 같이 미학적 승화 과정을 거쳐 독자들에게 경이로움을 부여하면서 미술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남미의 객관적 실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실체를 묘사하기 위한 사실주의적 작가 정신은 중남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의식의 발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21) Alexis Márquez Rodríguez, *Lo barroco y lo real maravilloso en la obra de Alejo Carpentier*, Siglo XXI, México, 1982, pp.50-51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혼혈문화로 대변되어지는 중남미 역사적 실체가 소설 세계에서 어떻게 접근되어 형상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중남미 역사적 실체에 대한 이해는 중남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첩경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중남미 대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다양한 문화 유산, 광활한 대륙의 자연 환경, 정치 지리적 특성들, 구성원들 간의 동질적이면서도 다원적 성격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현실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환상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마디로 중남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고뇌는 이미 예견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남미 지식인들은 자아 인식을 위한 끊임없는 고뇌와 방황 속에서 나름대로 정체성 규명을 위한 정반합의 과정을 도출해 내었다. 오랜 식민지 지배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제거하고 서구의 발전 모델을 수용하기 위하여 실증주의 사상을 적극 도입하였으나 중남미의 진정한 본질 파악을 위한 대체 모델이 되지 못함을 인지하고 이후 중남미의 현실을 고유한 특성으로 받아들이며 세계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등 의식을 타파하고 중남미 고유의 가치를 재 인지하는 시점과 맞물려 중남미 작가들은 1940년대 이후 이러한 성숙된 분위기와 편승 진정한 중남미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중남미 소설의 성과는 이 지역 고대 인디오 문명에 뿌리를 둔 신화적 전통이 질게 뻗 소설 체계가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한데서 비롯된다. 서구 초현실주의의 상징이나 환상이 관념적이고 현실 도피적인데 비하여 중남미의 그것은 서구적 문화와 중남미 전통적 신화와 시대 현실을 교묘히 배합시킴으로서 현실과 꿈, 역사와 신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환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중남미 현대 소설은 문학상의 제 발전 단계에서 성숙된 문학의 단계로 사실주의 문학과 환상문학의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리하여 중남미 현대 소설은 중남미의 독특한 현실 세계를 매우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남미 현실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이 필요하며 학제간의 상호 보완적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문학사적 관점에서 사상사와 연관하여 중남미 대륙에 대하여 중남미 지식인들이 갖는 정체성, 신분 본질 파악을 위한 노력을 거시적 개념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음을 밝혀 둔다.

참고문헌

- 김현창, 『중남미 문학 정선』, 신아사, 1997.
-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 손관수, 「정체성의 추구: 이상과 현실」, 『외대논문집 2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1989.
- Abellán, José Luis., *La idea de América: origen y evolución*, ISTMO, Madrid, 1972.
- Acevedo, María Guadalupe., “Identidad latinoamericana. Las raíces, la historia, los conceptos” en *Estudios Latinoamericanos*, UNAM, Facultad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México, 1989.
- Ainsa, Fernando., *Identidad cultural de Iberoamérica en su narrativa*, Gredos, Madrid, 1986.
- Alberdi, Juan Bautista., *Bases y puntos de partida para la organiza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Argentina*, Depalma, Buenos Aires, 1964.
- Márquez Rodríguez, Alexis., *Lo barroco y lo real maravilloso en la obra de Alejo Carpentier*, Sigol XXI, México, 1982.
- Arango, Manuel Antonio., *Origen y evolución de la novela*

- hispanoamericana*, Tercer Mundo, Bogotá, 1989.
- Beltrán, María Antonia., *Novela española e hispanoamericana*, Betania, Madrid, 1989.
- Bellini, Giuseppe.,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Castalia, Madrid, 1986.
- Bravo, José Antonio., *Lo real maravilloso en la narrativa latinoamericana actual*, Editoriales Unidades S.A., Lima, 1978.
- Bravo, Víctor., *Magias y maravillas en el continente literario*, La Casa de Bello, Caracas, 1988.
- Brushwood, John S., *La novela hispanoamericana del siglo XX*, FCE, México, 1984.
- Campra, Rosalba., *América Latina: la identidad y la máscara*, Siglo XXI, México, 1987.
- Carpentier, Alejo., *La novela latinoamericana en víspera de un nuevo siglo y otros ensayos*, Siglo XXI, México, 1981.
- Casas, Bartolomé de las.,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Cátedra, Madrid, 1982.
- Clissold, Stephen., *Perfil cultural de Latinoamérica*, Labor, Barcelona, 1967.
- Conte, Rafael., *Lenguaje y violencia*, Al-Borak, Madrid, 1971.
- Durán, Moreno R., *De la barbarie a la imaginación*, Tercer Mundo, Bogotá, 1976.
- Fama, Antonio., “Ficción, historia y realidad: pautas para una teoría de la novela según Carpentier” en *Revista Iberoamericana* Núm. 154, enero-marzo, 1991.
- Fernández Moreno, César., *América Latina en su literatura*, Siglo XXI, México, 1982.

- Flores Mora Danie y González Suárez Mitra., *La identidad y conciencia latinoamericana: la supervivencia futura*, P& V, México, 1990.
- García Cárce, Ricardo., *La leyenda negra: Historia y opinión*, Alianza, Madrid, 1992.
- Gómez Martínez, José Luis.,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Cátedra, Madrid, 1987.
- Guillermo Losa, Jorge., *Identidad histórica de América Latina*, Diana, México, 1992.
- Henríquez Ureña, Pedro., *Estudios mexicanos*,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84.
- Leander, Birgitta., *La identidad cultural en América Latina*, UNESCO, 1987.
- Lipp, Solomon., *Latinoamérica*, Núm. 23, UNAM. 1991.
- Márquez Rodríguez, Alexis., *Lo barroco y lo real maravilloso en la obra de Alejo Carpentier*, Siglo XXI, México, 1982.
- Martí, José., *Ensayos sobre arte y literatura*, Instituto Cubano del Libro, 1972.
- Martínez, José Luis., *Unidad y diversidad de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Joaquín Mortiz, México, 1972.
- Miró Quesada, Francisco., “Realidad y posibilidad de la cultura latinoamericana” en *Revista de la Universidad de México*, UNAM, México, 1972.
- Paz, Octavio. *El laberinto de la soledad*,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72.
- Rodó, José Enrique., *Ariel*, Montevideo, 1947.
- Sarmiento, Domingo Fautino., “Conflicto y armonía de las razas en América en *Conciencia Intelectual de América*. Carlos

- Ripoll, 1974.
- Stabba, Martín S., *América Latina en busca de una identidad*, Monte Ávila, Caracas, 1967.
- Subero, Enfraín., *El problema de definir lo hispanoamericano*, Universidad Católica Andrés Bello, Caracas, 1974.
- Varios: *América Latina: Historia y destino Homenaje a Leopoldo Zea I,II*, UNAM, 1992.
- Vargas Llosa, Mario., *Historia de un deicidio*, Barral, Barcelona, 1971.
- Vera y Cuspínera, Margarita., “José Vasconcelos, profeta de la Raza Cósmica” en *Latinoamérica*, UNAM. 1975.
- Victorino Lastarria, José., “Investigaciones sobre la influencia social de la conquista y del sistema colonial de los españoles en Chile”, en *Antología del pensamiento social y político de América Latina*,
- Bilbao, Francisco., “Socialbilidad Chilena” en *Obras Completas*, Buenos Aires, 1986.
- Yukievich, Saúl., *Identidad cultural de Iberoamérica en su literatura*, Alhambra, Madrid, 1986.
- Zea, Leopoldo., *América como conciencia*, Cuadernos Americanos, México, 1953.
- _____, *América en la histori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53.
- _____, *Convergencia y especificidad de los valores en América y el caribe*, CCYDEL, UNAM. 1987.
- _____, *Regreso de las carabelas*, CCYDEL, UNAM, 1993.

**La realidad histórica de América Latina y su configuración
literaria**

— en torno a la narrativa contemporánea —

Lee, Yong-Sun

Departamento de la literatura española

Universidad de Dankook

En la historia del pensamiento de América Latina, la búsqueda de la propia identidad cultural ocupa un lugar importante. Podemos darnos cuenta de que los intelectuales se preocupan por reflexionar sobre el modo de ser propio de los pueblos latinoamericanos. La realidad histórica latinoamericana se ha caracterizado desde siempre por el enfrentamiento dualista en parejas de valores, conceptos y tendencias políticas, filosóficas y estéticas de carácter antinómico, cuando no abiertamente contradictorias. La dicotomía de la identidad cultural nos permite entender claramente el problema tan polémico en la búsqueda de la identidad cultural.

Frente a la preocupación por revelar la realidad histórica, la novela latinoamericana que ocupa hoy un lugar privilegiado puede desempeñar un papel importante. Frente a la realidad tan compleja de América Latina, se puede decir sin exagerar que en buena parte la identidad cultural de este continente se ha definido gracias a su novelística a pesar del servilismo en que ha vivido durante algunos períodos. Especialmente las novelas contemporáneas reproducen el proceso del mestizaje que ha seguido la realidad histórica de América Latina.

Es conveniente analizar la realidad latinoamericana desde dos ángulos: la realidad objetiva y la realidad maravillosa, porque ambas se dan integradas en la vida cotidiana. La realidad maravillosa surge como un mecanismo metafísico para remarcar la realidad. Por lo tanto, de ninguna manera es una evasión de la realidad.

La narrativa contemporánea de América Latina se va abriendo camino a una nueva concepción de la literatura como búsqueda de ser. Lo real y lo imaginario han andado siempre juntos en América Latina y es evidente que ambos conforman una identidad cultural específica. Por lo tanto la narrativa contemporánea sirve como modos y fundamentos de representación de la realidad latinoamericana porque se presta especialmente para expresar la realidad de un país o un continente, en este caso América Latina, por su capacidad de abarcar tanto la realidad visible como aquellos elementos de la realidad que no se presentan a la vista. Entonces, el mejor entendimiento de las novelas contemporáneas latinoamericanas puede contribuir a conocer la realidad latinoamericana y será un medio eficiente para buscar la identidad cultural de este continente tan complejo y dinámico, resultado de la fusión de multiplicidades.